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장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다음 세대의 중인들, 충현 장학생!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2007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도구는 충현의 성도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린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분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천국일문 양성에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교회는 매년 400여 명의 재학생들(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19일),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 및 눈술심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천국일문으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롬 15:16) 따라서 1차 서류 심사에서도 단순히 성적과 외적인 면을 보지 않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마 16:24)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면접과 눈술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갈 6:14)

교회가 장학생을 선발하는 데에 신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곧 다음 세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마 16:15) 교회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약 5억 원 가량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총이며, 모든 성도들의 정성어린 감사의 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롬 13:6) 현재 교회학교와 부서에서 봉사하는 많은 장학생들을 대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장학생들은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위한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복음으로 이끌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한 다음 세대를 소망하며 장학생을 위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 (요요렐)

절대적인 행복이란?

(열왕기상 20:1~4)

을 향한 완전한 행복(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한다. (마 16:24) 이것이 기독교의 참 진리이다. “하나님께 절대 행복”이란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문은 열리게 되며, 생명의 진리를 배울 수 있고 들을 수도 있으며 또 실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자들은 되돌아서서 영원한 죽음의 길을 그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지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기대하신다 (호 14:1,2)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우리의 행복,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행복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존재와 능력과 선함과 사랑의 원천이 되신다. (시 95:4~7) 이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절대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짐과 새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은 메시간마다 그의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가 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원하시면 강하게 일하기를 원하신다. (고전 6:19,20) 이 절대적인 행복이 없이는 우리 안에서 그의 신하신 일을 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대적인 행복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행복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깊은 속에서 일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절대적인 행복을 끌어내어 하나님께 가져오게 하신다. 우리의 감정이나 양심으로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이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의심하며 또 주저하면서 스스로 “과연 이것이 절대적인 것일까?” 말하게 된다. 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막 9:23,24)

본문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 왕 벤하닷을 향하여 완전히 항복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사단을 이겨 승리하는 것은 곧 믿음이다. (요일 5:4,5)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께로 나아오면 된다. (사 1:18) 겹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바라보자. “영원한 성령”으로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히 9:14)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항복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행복을 받아 주셨음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유지하여 가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계속하여 유지하신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은 বলে 같은 나와 영원히하시고 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셨고 매순간마다 우리의 행복을 유지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갈 2:20)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삶을 유지해 나가실 것을 믿자. 절대적으로 행복한 삶에는 두 면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며, 다른 한 면은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 (고전 2:9) 이러한 일은 오직 우리의 절대적인 행복이 단순한 어린이와 같이 매음이 없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이루어진다.

행복할 때에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인 행복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준다. “주여! 내가 여기 주님을 위하여 있나이다” 주님 앞에 우리의 굳은 심령이 가루와 같이 되기를 간구하자. (롬 7:18)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 한 어떠한 것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 (갈 5:16,17) 이 모습을 진실로 회개하자. 나의 능력으로 살려는 자존심이 문제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한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갈 2:20) 십자가는 예수님의 영원한 영광이 태어나게 한 장소이다. (마 26:39)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는가! 그렇다면 이 땅위에 사는 동안 진정으로 죽음(자신의 부인)을 좋은 친구로 삼자. 그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광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모셔다 주실 것이다. 아멘.

UNCONQUERABLE CHURCH

⁽⁸⁾ "And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Smyrna write: The first and the last, who was dead, and has come to life, says this: ⁽⁹⁾ 'I know your tribulation and your poverty (but you are rich), and the blasphemy by those who say they are Jews and are not, but are a synagogue of Satan.' ⁽¹⁰⁾ 'Do not fear what you are about to suffer. Behold, the devil is about to cast some of you into prison, so that you will be tested, and you will have tribulation for ten days. Be faithful until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¹¹⁾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He who overcomes will not be hurt by the second death.' (Revelation 2:8~11)

A church that is faithful to Jesus Christ is an unconquerable church. In today's Bible passage, Jesus gives a message to the church in Smyrna. Smyrna was a seaport city known for its emperor worship. It was the center of the imperial cult of Rome. The church in Smyrna faced extreme cultural and political difficulties, yet it remained faithful to Jesus Christ. It was an invincible church because Jesus Christ was the center of its worship, not what was popular in the world.

Jesus mentioned to this church that He was, "The first and the last, who was dead, and has come to life"(v. 8) He wanted this church to remember His eternal presence and power, so that they could take comfort in Him. He wanted them to stay faithful, even though they were going through hard times. He told them, "I know your tribulation and your poverty (but you are rich), and the blasphemy by those who say they are Jews and are not, but are a synagogue of Satan"(v. 9) Jesus was aware of their situation. As a Christian, you know that following Jesus Christ means you are going to face various hardships. Jesus knows exactly what is happening with our church. He knows all our sufferings. He knows all about our troubles. I am sure that you did not think you would have to face many of the tribulations you have, and that you did not think you could have made it through them either. We are here now because Jesus is with us. John 16:33 says,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e world you have tribulation, but take courage; I have overcome the world" That is Jesus talking! Do you believe what He says?

Sometimes our tribulations are physical, and other times psychological, and often times spiritual. All kinds of suffering come our way, but you and I know that Jesus already suffered first. With Him, we have a heavenly future. He died, resurrected, ascended, and is coming again. He is the King of kings! As a church and as individual Christians, we are going to face trouble, but Jesus backs us up one hundred percent! (100%) No matter the poverty, in Christ we are spiritually rich. Many people will insult you and this church, thinking we are dumb and blind, but in God's eyes we are wise and insightful. Even though individually we may be just surviving day by day with faith, we have to remember that eternal richness is coming soon, "For you k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though He was rich, yet for your sake He became poor, so that you through His poverty might become rich"(2 Cor. 8:9) Amen.

When the Son of God, the Creator, incarnated here on earth, do you know how great His poverty was? Do you realize how low He humbled Himself? Jesus said, "The foxes have holes and the birds of the air have nests, but the Son of Man has nowhere to lay His head"(Lk. 9:58) Actually, Jesus was poorer than a bird, but He tells us, "Do not store up for yourselves treasures on earth, where moth and rust destroy, and where thieves break in and steal. But store up for y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where neither moth nor rust destroys, and where thieves do not break in or steal"(Mt. 6:19&20) Jesus knows our poverty level here in this world. Perhaps your home is not the biggest and the finest, or even this church, but in the eyes of God we are rich. Perhaps some here right now

have barely enough food or money to make it into tomorrow, but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hey have eternal riches. Perhaps some here right now have too much food or money, in which case the Bible says, "Instruct those who are rich in this present world not to be conceited or to fix their hope on the uncertainty of riches, but on God, who richly supplies us with all things to enjoy. Instruct them to do good, to be rich in good works, to be generous and ready to share"(1 Tim. 6:17&18) Eternal riches far outweigh material wealth, and whatever material wealth God has chosen to give you, you must manage it wisely, like the primitive church, through sharing and giving. Moses considered the reproach of Christ greater riches than the treasures of Egypt.(Heb. 11:26) How about you? Do you consider the tribulations of knowing Christ greater riches than anything this world has to offer?

The Smyrna church was faithful while suffering. Jesus told them, "Do not fear what you are about to suffer. Behold, the devil is about to cast some of you into prison, so that you will be tested, and you will have tribulation for ten days. Be faithful until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v. 10) Jesus did not want them to worry about future troubles. "If the world hates you, you know that it has hated Me before it hated you"(Jn. 15:18) Real Christians will suffer. The disciples and apostles were martyred for Christ's sake, "They will make you outcasts from the synagogue, but an hour is coming for everyone who kills you to think that he is offering service to God"(Jn. 16:2) Jesus asks us to be faithful until death, at which time He will crown us with the crown of life! Serving Christ brings a true reward. Please take courage in that knowledge.

For the past nine years, I have been preaching the gospel here at Choong Hyun. I have begged and pleaded with everyone who sits down in these pews, I have cried over you, to accept that Jesus died for you. He died for my sin. He saved my whole soul. He, alone, makes me His eternal child. Without doubt, I truly confess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On that confession, Jesus said that He will build His church. I hope this church trusts Jesus. He forgave us our sins. I hope this church appreciates the cross. We must deny ourselves, take our crosses, and follow Him all the way by faith, not by our own effort or through our own knowledge and experience, but only faith. We must be faithful to death. Jesus is looking at our hearts. His message today gives us strength and encouragement to endure the pain until He comes or we die. We don't have to fear suffering because Jesus has overcome. He makes it possible for us to overcome,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He who overcomes will not be hurt by the second death"(v. 11) What a blessing! What a wonderful message! What a great opportunity! Please take this course in life, and you will end up on heaven's side. As a church, let us always be faithful to Jesus Christ. As individuals, please be faithful to Jesus Christ. If our church is faithful to Jesus Christ, it will be unconquerable. If each of us stays faithful in this hard life to Jesus Christ, we will overcome death and receive eternal life. Amen. 卐

다들 주일 설교

정복할 수 없는 교회

(8)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행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10)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불찌여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8~11)



김성곤 목사

세상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교회를 결코 정복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항구 도시인 서머나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정치적, 문화적으로 극심한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충성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무적의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예배의 중심에 세상의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셨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당신을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8절)라고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신 주님과 그 능력을 기억함으로써 서머나 교회가 위로를 받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행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9절)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곧 여러 가지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을 의미함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 아주 정확히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겪고 있는 많은 고난과 맞서야 한다는 것도, 또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33은 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부요한 교회

때때로 우리의 고난은 그 자체를 통해서, 또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찾아옵니다. 온갖 종류의 고난들이 우리의 앞을 막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고, 머지 않아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대적인 100%의 후원자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요한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우리를 향해 귀머거리, 소경자라고 비웃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혜롭고 지각 있는 자들입니다. 비록 하루 하루의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억하십시오. 이제 곧 영원한 휴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시니라”(고후 8:9) 아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아들, 곧 창조주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 때 그분이 겪은 가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눅 9:58) 정말로 예수님은 공중의 새보다 더 가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썯과 동물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에는 썯이나 동물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니라”(마 6:19,20)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얼마나 가난한지 아십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의 집도 가장 크거나 좋은 집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부요

한 자들입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몇몇 사람들은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나褲돈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들은 영원한 부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혹 여기에 있는 몇몇은 양식과 돈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멸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이 없는 재물을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니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딤후 6:17,18) 영원한 부는 물질적인 부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실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물질적인 부를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초대 교회와 같이 나누어 줌으로써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급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히 11:26) 여러분은 어떻게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십니까?

고난 중에도 충성하는 교회

서머나 교회는 고난 중에도 충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불찌여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10절) 예수님은 닥쳐올 고난에 대해 그들이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요 15:18) 참 그리스도인이려면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과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요 16:2)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그 때에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는 참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 교회

지난 9년 동안 저는 충현교회에서 복음만을 설교해 왔습니다. 저는 이 곳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울면서 설교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의심 없이 저는 진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 믿고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충현교회가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충현교회가 십자가에 감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참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지식과 경험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11절) 이것이 야말로 참된 축복입니다! 놀라운 메시지가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기적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이 놀라운 여정을 밟으십시오. 우리 여러분들의 총력적인 헌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로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스러운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할 때 세상이 정복할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면,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

수요일 예배 메시지(2007.1.10)

필요함과 감사함 (누가복음 17:11~19)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눅 9:51)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종착지는 예루살렘이었다. 그 곳에서 당할 조롱과 수치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아가셨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났다. 거기서 예수님은 열 명의 문둥병자들을 만나셨다. 문둥병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영적으로 살펴보자.

필요함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다.(사 55:6) 사실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안 되었다. 당시 율법에 의해서 문둥병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계신 근처까지 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눅 17:13)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채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과 겸손으로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울부짖었다.(막 4:10) 예수님을 향한 다른 호소는 없었다. 자신이 살아왔던 환경, 어려운 삶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들의 필요는 자신의 병이 치유되는 것이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시 27:7) 이들의 필요는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었다.(예 3:22,23) 그들은 이 사실을 믿었다. 이처럼 열 명의 문둥병자들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였다. 이들의 기도에는 의로움을 내세웠던 바리새인의 외식이 없었다.(눅 18:9-12)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하였을 뿐이었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으니 지파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눅 17:14) 결국 이들은 보신 예수님을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는 문둥병자보다 더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지 않은가? 십자가를 무시하고 외식으로 가득차지 않은가?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세상이 주는 행복만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문둥병자보다 예수님이 더 절실히 필요한 주된들이다. (눅 3:23)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손길을 간절히 원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롬 6:23) 자신을 조종하고 있는 모든 '자존심'을 버려라.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자.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예수님뿐이다. 내 삶에 필요한 분도 예수님뿐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진실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따르자. 문둥병자 이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은 바로 '우리'이다.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도 없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들의 필요를 채우셨다. 고침을 받은 이들의 기쁨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컸다. 그러나 그동안 병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해야 했기에 그들은 갑자기 바빠졌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신 예수님을 정차 잊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제3교육위원회



신선진 (장로, 제3교육위원장)

어느덧 2006년 한 해를 보내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는 말씀으로 2007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로지기 제3교육위원회가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말씀을 배우고 이를 실천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3교육위원회에 속한 부서로는 연령대별로 40대의 장년 1부(제1교육관 507호), 50대의 장년 2부(제1교육관 407호), 60대의 장년 3부(제1교육관 307호), 70세 이상의 소망부(갈릴리움)가 있고, 특수 부서로는 정신지체 장애우들의 사랑부(복지관 지하 1층), 청각장애 장애우들의 에바다부(제2교육관 1층), 예배와 집회 시에 어린 자녀들을 받아서 돌보는 탁아부(선교관 1층), 그리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의 안내와 등록을 맡는 새가족 등록부와 등록한 새가족들의 양육을 위한 새가족 양육부(에바다홀) 등 9개 부서가 있습니다. 위의 각 부서 중 장년 1부부터 장년 3부까지는 각각 동일 연령대로 모여 말씀을 배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 있으며, 소망부는 70세 이상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나온 신앙 및 인생의 여정들을

병이 나았기 때문에 남은 삶을 보충 사람처럼 살 수 있었겠지만 이들에게는 영원을 향한 소망은 없었다. 이같은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아니 나의 모습 속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주님으로부터 필요를 채운 받은 뒤 오히려 주님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주님의 축복으로 포장된 간증을 하며 실제로는 자신의 영광과 공로를 자랑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가 깨끗했느니라"(엡 2:13) 주님의 보혈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참된 소망은 없다. 매 순간 전심으로 보혈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엡 2:8,9)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 때문에 도리어 자신의 공로와 노력을 내세우며 또 다른 우상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자.

감사함 비록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감사는 없었다. 사실 그들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해야 했다.(고전 6:20; 히 13:15) 오직 주님을 향한 감사로 넘쳐야 했다.(골 1:12) 그러나 고침을 받은 뒤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아래 엎드리어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눅 17:15,16) 감사로 찬탄한 그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는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니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막 17:19) 질병의 치유와 비호할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은 오직 감사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참 감사가 있는가? 십자가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찬미한가? 예수님께 돌아왔던 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가 사라진 아홉 명 가운데 내가 있지 않은가? 나의 믿음을 약할 때 주 날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찬 423장) 때로 주님의 은총을 잊은 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에 통성하신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신다.(딤후 3:5) 이 은총의 주님께 자신의 완악함을 회개하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한 걸음씩 동행하자. "그러나 주님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후 5:17)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믿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에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믿이 늘 평안해"(찬 466장)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한 걸음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가득하고 감사로 찬탄할 것이다.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에게 영광 받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감사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들세"(찬 313장) 아멘.

돌아보면서 이제 다시는 눈물도, 애통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그 곳, 주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소망하며 믿음과 찬송과 기도로 현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탄부서하는 교사와 한 사람이 학생과 교사를 밀착 지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나 에바다부에서 모든 진쟁을 수화로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농아들을 섬기는 모습과 탁아부에서는 교사들이 맡은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안거나 등에 업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을 정성껏 맞이하여 친절하게 안내하고 등록을 받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새가족 등록실의 모습과 등록한 새가족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철저하게 양육하고, 지도하며, 심방하는 헌신적인 새가족 양육부의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3교육위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3교육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는 제각기 특수한 부서로 생각되기 쉽지만 이 다양한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백성으로 다 같은 소망 안에서 하나되게 기도할 뿐입니다.(요 17:21,22) 2007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교회는 '자신을 부인하자, 십자가를 따르자.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자,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라는 교훈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3교육위원회에 속한 모든 부서가 몸 된 주님의 교회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시니이다"(마 16:16)라는 고백과 자신을 부인하는 가운데서 부서 간의 이기주의가 깨어지고, 각자 가진 여러 모양의 죄가 부서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남골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좁은 국토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묘지 부족의 문제입니다. 매년 여의도 만한 면적이 묘지로 잠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장례의 문화는 남골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더러는 남골에 대해서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이 계시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기독교 장례 문화 세미나'에서도 남골이 성경적, 신학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매장(埋葬)을 하든 화장(火葬)을 하든 우리의 육신은 결국 없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히 10:39) 그러므로 화장을 통한 남골에 대해 필요 이상의 조바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묘지인 충현동산(경기도 광주 소재, 매장식) 이외에 남골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준비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찾으려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유럽의 남골당을 방문하여 가장 합당한 남골당 건축에 대한 방향을 연구하였습니다. 총 3개국 5개 시설을 방문하고 온 일꾼들은 현지 남골 시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자료를 가지고 와서 현재 남골당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통용되



나사렛을 앞에 남골당 관련 사진을 게시 중입니다

는 남골 방식은 총 6가지입니다.

- ①건축물 내의 벽체에 남골함을 보관하는 방식(자연 환경 활용)
- ②벽체를 특수하게 디자인하여 외부에 노출하되 자연스러운 조경으로 처리하는 방식
- ③담장과 같이 하여 외부의 남골 보관함에 저장하는 방식
- ④바닥에 설치하는 방식
- ⑤연못 내부로 흘러가게 하는 방식
- ⑥산골하는 방식(뿌리는 방식) 등입니다. 남골 방식에 관한 사진을 나사렛을 앞 벽면에 게시하였으니 직접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매장이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복음적인 부활 신앙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매장 중심의 장묘 문화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골당 건축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화장 시설을 혐오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 법규도 강화되어서 지금 당장은 화장 시설 설치 및 남골당 건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의 남골당 건축을 통해서 복음에 충실한 기독교 장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나"(요 11:25, 26)

(행정위원회)

복음 전도를 위한 은총의 통로인 의료 선교부

의료 선교부는 현지 의사, 약사, 간호사들로 구성된 복음의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주일 의료 선교부(제1교육관 208호, 오후 1시~4시 30분, 내선 344)에 속한 30여 명의 봉사자들은 의료 행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의료 선교부를 통해서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어도 어려운 형편 때문에 약국이나 병원에 가기 주저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곳에서 단·장기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받은 외국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에 의료 선교부의 사역은 국내에서도 가능한 세계 선교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중직자들이 감기라든지 가벼운 질병 치료를 받으려고 이 곳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이라면 의료 선교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외의 감기, 두통, 가벼운 진료상담 및 치료를 위해서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의료 선교부는 복음 전도를 위한 은총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고전 1:17)

"지금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과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정현민 목사

1997년 9월, 충현교회에 부임하신 정현민 목사님께서 보혈로 거듭난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 새로운 임지를 향해 떠나십니다. 지난 10여 년간 목사님은 교구, 부서, 각 위원회 그리고 최근 선교위원회에서의 사역까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떠나보내는 아쉬움이 있지만 한편으로 새롭게 사역하실 교회에 뿌려질 예수의 복음을 기대하기에 오히려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원동교회(서울시 용산구 소재)의 담임목사로 가시는 정현민 목사님의 사역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간증과 나눔

빈 껍데기의
인생보다는
복음을 위하여

우리 팀이 1차 영성 심사에서 탈락할 때도 선교를 꼭 가야만 한다는 강한 결의가 팀원들 사이에 자리 잡지 못했었다. 팀원들의 마음은 흩어져 있었고 거쳐 가야 할 여러 가지 절차들에 쫓겨 빼적거리고만 있었다. 그때까지 팀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주님께선 우리가 그러

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팀 모임이 계속 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선교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열려 주셨고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선교지에 나아갈 준비된 자녀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셨다. 기도의 불길로 타오르는 기도원에서의 밤이 생각난다. 차갑게 내리는 비도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식힐 수는 없었다. 작자

의 목소리에 집중했기에 생겼던 불협화음이 견고히 오직 선교를 향한, 아버지께서 찾고 계신 선교지의 영혼들을 향한 갈급함으로 이루어진 기도의 아름다움 하모니가 그 밤의 기도원의 찬 반 공기와 우리의 마음 속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 한가운데에도 은은히 울려 퍼졌으리라 확신한다.

나의 참 기쁨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서 지우고 나만 내게 남는 것이 무얼까 생각해 보았다. 그저 빈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죽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하다 했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버린다고 빈 껍데기 인생으로 사느냐 내게 말하겠지 그 어둠의 땅에서 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것이다. "씨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잠 21:31) 부족하지만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마병을 준비해왔다. 보내시는 것도, 이끄시는 것도 오직 주님이시니 모두 주께 맡긴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직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시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팔 끝까지 복을 전하는 우리 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김민재(대학부 3팀)

죄인을 통해 세우실 주님의 교회

매해 신년 예배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한 해 동안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곤 합니다. 그 러기에 많은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드렸던 2007년 신년 감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귀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가이샤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나의 자에게도 묻고 계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짧은 질문 속에서 '정말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왔음을 말합니다.

지난 한 해, 내 말씀을 들으도 깨닫지 못하고 굳어 있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도 꺼려 했던 모습이 제 모습임을 주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2007년을 회개하며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것,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 갈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놀라운 음성이었습니다. 늘 깨어지고, 늘 부서지며, 늘 넘어지는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죄의 본성으로 가득찬 자이지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는 저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007년 한 해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나를 버리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지기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과,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복음에 순종해서 참다운 교회의 지어져 가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수민(집사, 청년 1부)

은총의 눈물

처음엔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흘리는 목사님만의 개인적인 눈물로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주님께 우리를 위해 안타까워하시며 흘리는 눈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십니까?" 드디어 주님은 저로 보혈을 보게 하셨습니다. 매번매 때마다 흘리는 목사의 눈물에 담겨 있는 은총의 십자가, 그 은혜의 역사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회개하라! 자신을 부인하라!"는 외침을 들었던만큼 듣는 통 마는 통 무시하기 일쑤였던 '그 말'이 이제 더 이상 '그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이 되어 나의 심령에 사무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눈물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에 메마른 땅이 같은 내 눈에도 은총의 샘물이 뜨겁게 솟아났습니다. 찬송의 가사 한 마디 한 마디가 나의 영혼을 깨워 영원의 기쁨으로 저를 인도하였습니다.

저 위험한 곳 이룰 때에 숨겨 주시는 주님의 오른손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 저에게 주님을 만나는 예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날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용서와 기쁨은 은총의 눈물을 흘립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며 영원한 생명을 받아 우리로 하여금 은총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 한 편에서 솟아오르는 '내 정성, 내 꿈, 내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은총의 십자가를 붙들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오직 은총이기에! 아무 쓸 데 없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 나의 부처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아멘!

김동희(집사, 9교구)

기도를 통한 기적의 역사

지난 달 형부가 수술을 하였다. 책장 옆의 혹을 제거하는 수술이었다. 5년 전 책장 수술을 했는데 그 옆에 혹이 다시 자라서 모두 부 같이 연약한 책장을 칠 새 없이 건드렸다. 형부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칼로 찌르는 아픔이라는데 나는 매일 독수리에게 심장을 찢기는 남자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지 못 박히시고 가시에 찔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했다. 우여곡절 끝에 십여 시간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형부가 깨어나질 않았다.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비롯해 코와 입 그리고 팔로 영양제와 수당은 약과 팔콘이 들어가고 있었다.

수술 후 사흘째 되는 날, 보통 사람같아리만 이미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을 텐데 형부는 숨조차 쉬질 못했다. 혼수 상태였다. 어떠한 처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었다. '주님! 살려주세요!' 또 피 같은 시간이 나흘이나 흘렀다. 깨어나서 나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건 기적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는 체질을 하게 되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부를 위해 기도하던 중이었다. 누군가 내 손뼉을 막고 무언가의 힘을 위해 손을 잡았다. 내 목을 누르는 그 어떤 힘을 손으로 밀쳐내면서 간신히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기도 하면서 사투를 벌였다. 나도 알 수 없었다.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 목을 누군가가 붙여 쥐고는 놓질 않아 숨을 쉴 수 없었다. 마치 차 안은 약한 열과의 치열한 전쟁터 같았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새우기를 10여 분, 그러자 더 이상 내 목은 짓눌리지 않았고, 더 이상 가슴이 답답하지도 않았다. 숨을 쉬게 된 것이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다.

다름 날 새벽, 언니의 연락을 받았다. '형부가 스스로 숨을 천다 는 것이다.' 아마도 형부가 숨을 쉬게 된 시간은 내가 차 안에서 무언가와 영적인 싸움을 했을 그 무렵인 것 같다.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그 위험한 순간의 형부가 형부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왜 내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지 나는 모른다. 그저 주님께서 형부에게 삶을 조금 더 연장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 뿐이다.

지난 해 12월, 마지막 날, 형부는 호흡기를 떼었고 말도 조금씩 하신다. 그 많은 의료 장비를 모두 치워도 품을 만큼 호전되었다. 몸을 뒤척이기도 하고 발을 까다거리며 움직이신다. 목에 구멍을 뚫어서 말을 해도 아직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지만 의사 소통도 가능하다. 이 모든 일은 누가 보아도 기적이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간절한 기도와 주님의 은총이 있었다. 의사는 이제 일 주일 정도 지나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도 좋단다. 수술 전 나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눈물이 난다.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흐른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다. 주님의 사랑하심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가슴 가득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김현진(집사, 18교구)

선교 랑방 중등 2부 선교팀

주님이 하시니까!
기도하시니까!

2007년도 단기 선교가 시작되었다. 지난 2006년 12월에 있었던 제자 CMTC 훈련을 시작으로 땅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걸음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제 1월 15일, 선교지를 향해 출발하는 팀들이 7개 팀이나 된다. 그 중 가장 만능적인 중등 2부의 2개 선교팀의 일부 팀원들을 만났다. 그들과의 만남은 하늘 놀라웠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선교팀에 지원한 학생들을 보면서?

교사이지만 오히려 학생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한 학생은 부모님이 교회에 잘 다니지 않아서 믿음도 불구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설득하고 선교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큰 은혜를 받았지요. (김희동 교사)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영상 심사에서 탈락한 것이 오히려 팀의 힘을 더욱 내자게 하고 영적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최희영 교사)

한문으로서 선교를 결심하면서?

처음에는 친구 때문에 선교를 결심했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

면서 주님은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죠. 물론 선교를 준비하는 것이 많이 힘들지만 더욱 많은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조하연)

작년에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은혜가 컸어요. 철저한 훈련 때문에 여러 모로 힘들지만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박수희)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선교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가 선교를 결심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은 믿음도 생기고 정말로 좋아요. (김하연)

친한 친구와 함께 선교를 가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중에게 못 가게 되었어요. 친한 친구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의 힘 때문인지 지금은 힘들지만 재미가 있어요. (백진규)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선교를 결심하는 것이 마냥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은 복음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기뻐요. (한준식)

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다. 그래도 신기하게 훈련을 받을 때마다 힘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김하연)

주님에게 하시는 일이나가 기쁘게 힘들지만은 않아요. 주님이 하시니까요! (한준식)

작년 1차 CMTC 훈련 때는 다음 날이 학생들의 기말 시험이 있어서 각전을 할 했는데, 학생들이 오히려 끝까지 훈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스러웠습니다. 훈련 후에 더욱 열심히 시험 공부해서 그런지 학생들의 성적이 나쁘지않은 것 같다고 아서서 특이 기사했죠. (최희영 교사)

언어를 외우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선생님께서 컴퓨터를 이용해 영어 발음과 글자 공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지금은 제이하게 언어를 외우고 있어요. (조하연)

학생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평일에 선교를 준비하는 것이 힘들었다. 그래도 토요일, 주일에 집중하여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잘 따라주어서 기쁩니다. (김희동 교사)

선교지에서 전해야 할 것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도들을 꼭 주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게... (백진규)

작년에 선교지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가 기억나요. 그분께 진도의 예수님, 십자가를 보여주었을 때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 부활의 그림을 보자 기뻐하셨어요. 이런 선교에도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전하셨답니다. (조하연)

당연히 십자가의 복음이지요. (김하연)

예수님을 전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꼭 전하겠습니다. (한준식)

기도 제목과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다면?

나를 버릴 수 있도록! 나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세요. (한준식)

끝까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백진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복음의 종인이 되게 해 주세요. (김하연)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의 부족을 원천히 채워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백수희)

스태브 전사처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헌신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조하연)

이번이 네 번째 선교입니다. 매년 주님은 저에게 특별한 은총의 만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주님이 친히 이끄시는 특별한 만사를 기대합니다. (김희동 교사)

저의 팀은 아직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하지만까지 십자가만을 붙들며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최희영 교사)

중등 2부 학생들의 나이는 이제 겨우 15세! 사실, 14세로 보아도 맞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고백하는 믿음과 선교에 대한 마음은 인터뷰 내내 편집자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고백하는 신앙이 단순히 자신의 생각에서 오라난 말이나 아니라 성경에서 주신 확신이었기에 2007년의 선교에서도 풍성한 열매가 기대 된다. 아니 반드시 풍성하도록 더욱 기도해야겠다. 2007년, 모든 성도님들도 선교의 발간자가 아닌 '나는 선교사' 또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편집국)

열방을 향한 도구로 빛어진 2007년 첫 복음의 증인들 - 원선부 3팀

-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되도록 매순간 성령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윤보경 성도)
- 자신을 부인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 철저한 준비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신교선 성도)
- 기쁨과 감사로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영철 성도)
-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선교를 하겠습니다. (김현정 권설)
-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고 저에게 맡겨 주신 선교의 사명도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본받아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김성탁 집사)
-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굳게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맡겨 주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최충준 집사)
-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선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자 권사)
-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엔 턱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2007년도 복음 전하는 첫 팀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달려 갑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십자가 앞에 내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복음만 증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김대용 안수집사, 팀장)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1월 15일(월) - 1월 20일(토)	중등 2부 1팀	정창수	1월 15일(월) - 1월 23일(화)	외선부 3팀	김대용
1월 15일(월) - 1월 20일(토)	중등 2부 2팀	정진근	1월 15일(월) - 1월 23일(화)	외선부 4팀	오순도
1월 15일(월) - 1월 23일(화)	대학부 3팀	한현식	1월 16일(화) - 1월 24일(수)	탁아부 1팀	정원근
1월 15일(월) - 1월 23일(화)	외선부 2팀	이영환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39	김태우	19	대학부	이태우(2)	68	유영선	1	장년1부	최규태(1)
40	조은민	19	중등3부	한종연(17)	69	신선혜	1	대학부	최규태(1)
41	정미연	19	고등부	김준호(14)	70	권민호	19	대학부	오자룡(4)
42	원현선	7	고등부	임우진(7)	71	유범준	19	대학부	권지현(13)
43	정민선	19	대학부	한진교(18)	72	코기수	1	장년1부	
44	임우진	19	대학부	최희영(18)	73	조세희	1	중등3부	
45	김영성	19	장년1부	박성민(11)	74	조라라	1	장년1부	
46	나은지	19	장년1부	최상기(18)	75	여리자	19	외선부	김영희(5)
47	나은희	19	장년2부	최상기(18)	76	남현철	14	에베다	백진기(1)
48	김태희	5	장년1부	한승기(16)	77	장봉록	14	에베다	백진기(1)
49	채정식	19	장년1부	이재환(2)	78	장승호	19	대학부	황성철(19)
50	조은민	19	고등부	안연영(14)	79	이성준	19	장년1부	오자룡(1)
51	김현선	19	장년1부	이승기(6)	80	박민진	19	대학부	김종우(1)
52	김종현	1	소망부	이승기(6)	81	정윤미(자)	19	외선부	김종우(6)
53	김종현	3	장년1부		82	염수진	19	외선부	장승호(6)
54	장민수	19	장년1부	김두순(6)	83	사미나	19	외선부	백진기(1)
55	최정식	18	장년1부	안서현(2)	84	오자룡(자)	19	외선부	백진기(1)
56	신선혜	18	장년1부	안서현(2)	85	홍기	19	외선부	김순남(9)
57	이영희	3	장년2부	김영희(6)	86	아기	19	외선부	김순남(9)
58	최희영	13	소망부	최창희(13)	87	자라	19	외선부	김순남(9)
59	김태희	3	소망부	최창희(13)	88	볼트도라	19	외선부	김순남(13)
60	바르다	4	소망부		89	바르다	19	외선부	황성철(10)
61	이성희	4	소망부		90	오성철	19	장년1부	
62	국경진	3	장년1부		91	조원현	19	장년1부	박지영(1)
63	박준구	19	대학부		92	최태훈	1	장년2부	유영희(1)
64	한소자	18	장년3부	이학재(18)	93	송영관	19	장년1부	김광미(9)
65	정혜숙	12	대학부	오화자(14)	94	이미애	19	대학부	김보성(1)
66	한진선	19	대학부	이주영(17)	95	이선영	19	대학부	문종미(7)
67	신영수	1	장년1부	최규태(1)					

* 종교교인과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발 세

1. 정철성의 타고집사(임양자 집사의 모친, 송자영 집사의 장모, 6교구 송파구역) / 4월 별세, 12일 장례
2. 유은순 성도(홍복자 권사의 시모, 7교구 용남1구역) / 6일 별세, 8일 장례
3. 정철성 타고집사(김정국 성도의 모친, 서귀순 집사의 시모, 12교구 연희구역) / 6일 별세, 9일 장례
4. 유은순 성도(이규찬 집사의 시모, 최경남 집사의 시모, 1교구 태화대1구역) / 7일 별세, 9일 장례
5. 정철성 타고집사(김정국 성도의 모친, 서귀순 집사의 시모, 8교구 송동2구역) / 7일 별세, 9일 장례
6. 박동욱 타고집사(성영숙 집사의 모친, 김경남 성도의 장모, 6교구 잠실2구역) / 8일 별세, 10일 장례
7. 박 세 타고집사(송자영 집사의 모친, 안상기 안수집사의 장모, 12교구 가락우성구역) / 8일 별세, 10일 장례
8. 김재은 타고집사(유영희 집사의 모친, 박순진 집사의 장모, 17교구 이태1구역) / 10일 별세, 12일 장례
9. 정철성 타고집사(안수집사의 부인, 박진진 박찬재 성도의 모친, 11교구 장파구역) / 10일 별세, 12일 장례

결 혼

1. 정영수 군(공주맥 집사, 양상순 권사의 아들, 1교구와 백범1역(백상동, 세, 순신여校的 딸) / 20일(토) 오후 1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2층 그랜드볼룸

주 소 별 명

1. 박호을 안수집사, 전순은 권사 (경기도 용인시 가평구 상하동 296 대우하이츠 103호 1104호, 11교구 ☎31-284-7632

◆ 총력 교회주변 전도

- 일 시 : 여전도회 : 이번 주 수요일(17일), 1부 예배 후
남전도회 : 이번 주 토요일(20일), 오후 2시
장 소 : 여전도회 :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남전도회 : 1지구(12,3,4교구)-307호 2지구(5,6,7,8,9교구)-307호
3지구(10,11,12,13,14교구)-401호 4지구(15,16,17,18교구)-407호

◆ 단기선교 팀장훈련

- 일 시 : 1월 17일(수), 1월 24일(수) 수요 2부 예배 후
장 소 : 2007년도 단기선교팀 합동, 안수집사 전원

◆ 2007년도 단기선교팀 나눔 및 면접 안내

- 일 시 : 1월 19일(금) 09:30 잡 속 : 제2교구합동 301호
대 상 : 대학생 - 대학생형 장학생 신청자 장 소 : 본당 112호

◆ 권사회 찬양연습

- 일 시 : 1월 19일(수)~3월 30일(금), 매주 수요일 1부 예배 후
대 상 : 권사 전원 장 소 : 강림회홀

◆ 전도위원회 회개집사 실시

- 전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하반기 회개집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위원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회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가 기간 : 2007년 1월 7일(주일)~1월 28일(주일)
대상 기간 : 2006년 7월~12월 집사, 전도위원회(교육과 403호)
준비 서류 : 시산표 1부(2006년 1월~12월), 금전납부부, 합동, 영수증합, 영예증장

◆ 수고요청 개강

- 일 시 : 1월 28일(주일)~5월 13일(주일), 매주 오후 3시~4시 20분
장 소 : 제2교구합동 1층 예배대무실

교회직원(목회직) 모집

1. 오모부목 : 겸비직 세계교인, 65세 이하
2. 자 격 : 자립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3. 세무서장 : 영합장 추천서(타교인)
4. 세무서장 : 665-1 시무과 ☎ 552-8200(내선 403)

총련어린이집 교사 모집

1. 오모부목 : 어린이집 집교사 및 보조교사
2. 자 격 : 세계교인 이상, 정규 대학에서 유아교육 및 관련학과 전공자
3. 분 회 : 강남구 역삼동 665-1 총련어린이집 ☎ 5554-7054

2007년 제2차 CMTC 훈련(2)

(교과과정 : 2주간 장소 : 갈릴라움)

시 간	내 용
18:10~18:40	제3강 선교 현장의 영적 상황
18:40~19:10	제4강 2006년도 선교 사례 및 개선 사항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15 (월)	16 (화)	17 (수)	18 (목)	19 (금)	20 (토)	21 (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진학래	최성규/이보신	이재영/김용필	이경준/박우연	유성백/강만수	김준희/홍순애	황진섭/이옥주

예배담당 안내 (1/17-1/21)

날짜	예배	설 교	사 회 기 도	찬 양
1/17	수요 I	참 신자의 삶 (히 10:19-25) 김성관 목사	양재호 김은희	이 몸의 소망 무연가 (호산나 찬양대)
1/17	수요 II	스태반의 순교 (행 7:54-60) 강명구 목사	이용진 이근덕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실로암 찬양대)
1/19	금요일회	김성관 목사	김준희	별로 이화영 / 소프라노 이은혜 / 에루살렘 찬양대
1/21	주일 I	정복할 수 없는 교회 (계 2:8-11) 김철규 목사	강명구 임복섭	예배 전 찬양
1/21	주일 II	정복할 수 없는 교회 (계 2:8-11) 이희서 목사	이원덕 고재순	내 각 의지하는 예수여 / 불꽃 6중주(노영화)
1/21	주일 III	정복할 수 없는 교회 (계 2:8-11) 김성관 목사	여국근 강철형	제곱하여 지내온 것 / 별로 이화영(한복아 오케스트라)
1/21	주일 IV	정복할 수 없는 교회 (계 2:8-11) 고광현 목사	정용선 최희운	내 영혼의 그늘이 감싸네 외 / 소프라노 전덕원(한복아 오케스트라)
1/21	주일 V	정복할 수 없는 교회 (계 2:8-11) 김성관 목사	양재호 유성백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여 / 별로 이화영(한복아 오케스트라)
1/21	주일영합	내 마음이 원하는 바 (롬 10:1-13) 안치원 목사	하종철 장길남	별로 이화영(한복아 오케스트라)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전 1:00(외국인 동시복합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들의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1월 19일 11:00~11:45 7:00	본 당
금요일회	자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 당

기도회 참여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요일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요일회	개석 10:30	금요일회 후 본당 앞출발

요일 11시 요일회는 주일부 및 부흥회는 영,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 요일 11시 요일회는 주일부 및 부흥회는 영, 중국어, 일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로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1월 19일 9:00~11:00	교육관 110호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처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청 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12호
청 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청 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 방 부	오후 12:15	갈 린 리 홀
사 랑 부	오전 11:00	북지관 지하1층
예배다부	오전 9:00(한복아 오케스트라)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타 아 부	(주) 오전 8:30~오후 4:30 (금) 저녁 6:30~제990	선교관 1층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메 다 나 홀
총련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예언교육	주간교육	총련복지관
국제한국인교부	오전 11:00	아 멘 홀

성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지도

- 김은호 노장현 이병학 이준 남선우
김종구 최무진 이창호 차신득 김광남
이종석 임두진 전홍용 전홍필 이정우
김단용 한승규 김영수 김기환 김원철
이형수 안현원 최환관 김구형 최윤덕
이재인 박덕영 이대식 정태부 박홍규
김명호 조종환 배순식 김영달 이철호
최희호 노영환 박철규 정정길 신상수
김재복 강철형 김경순 이덕우 장철환
김순곤 함정숙 윤석민 정성현 안석현
김민준 김창규 김중선 임창식 김은철
전학래 김진국 전계식 장승규 전은배
석영식 구재환 송두섭 최화영 신선길
유상배 박상선 김규식 신양철 정창수
임복섭 이상성 오도순 양기주 김대식

■ 부목사

- 정현민 박기원 류병희 여국근 안창덕
장원일 전진호 고광현 김익환 장 훈
임현덕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정종선 양재호 이성진 최성규 이재영
이경준 김준희 윤수원 황정진 유계진
강명구 정성현 김철규 이용진 양태선
유성백 유현철 탁정현 김한수 최성득
- 여전도사
윤진희 안태준 김연희 홍순애 이옥주
김갑자 한태준 김경진 강국철 최문섭
전은희 김경자 김경희 이복순A 류진희
한성민 임태주 장영미 옥다자 이복순B
장호숙 전영희 이혜숙
- 찬양감독 강기규
■ 전일회지 서준성 김원섭
■ 전목회지 김소연 ■ 전집사주지 장연희
■ 전 소 사 요한

교회 오시는 길

